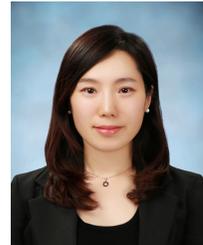


# 고려인 축구 지도자 천일손의 축구 인생과 그가 남긴 유산 : 소비에트 시기 스포츠 문화와 고려인 정체성을 중심으로\*



양 민 아 (중앙대학교 교양대학)  
(minayang919@gmail.com)

## 국문요약

본 연구는 고려인 축구 지도자 천일손(Чен Ир Сон, Андрей Буирович, 1921-1984)이 활동했던 1920-80년대 소비에트 시기 스포츠 문화와 고려인 스포츠 활동의 의미를 분석하며, 그의 업적을 재조명한다. 소비에트 스포츠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국가 이념과 사회 통합을 위한 주요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이는 고려인들에게도 사회적 입지와 정체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 되었다. 소비에트 다민족 사회에서 스포츠는 소수민족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주요 요소였으며, 고려인들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확립하고 인정받는 과정에 있었다.

천일손은 소비에트 및 북한 축구 발전에 기여한 핵심 인물이며 고려인 스포츠 분야의 선구자로 평가된다. 강제이주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며 소비에트 축구계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고, 지도자로서 중앙아시아와 북한, 소비에트 연결하는

\* 이 논문이 게재되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해주신 민족연구 편집위원님들, 줄고를 꼼꼼히 읽고, 보다 나은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유의미한 조언을 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님들, 마지막으로 전화면담과 더불어 여러 방면으로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월곡고려인문화관 '결'의 김병학 관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고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1958-60년까지 북한 축구 대표팀을 지도하며, 1966년 월드컵에서 북한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8강에 진출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1965-67년에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콜호스 축구팀 FC 폴리타젤(Политотдел)의 감독을 맡아 팀을 소비에트 리그 내 강팀으로 성장시키며, 고려인 사회 내에서 스포츠를 통한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중추적 역할을 했다.

그는 소비에트식 전술을 도입하여 북한 축구의 기초를 다지고, 고려인 및 중앙아시아 축구의 체계적 육성과 전술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그의 축구 철학과 전술 연구는 소비에트 및 북한 축구 발전 과정과 스포츠 문화의 지속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는 천일손의 업적을 조명함으로써 소비에트 스포츠의 정치·사회적 역할을 고려인의 맥락에서 분석하고 고려인 문화 연구에서 스포츠의 의미를 재평가하고자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1차 자료를 확보하여 천일손의 생애사를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관련 인물들의 구술 자료를 통해 천일손이 소비에트 및 북한 축구 발전에 미친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고려인 스포츠 활동의 역사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코리아 디아스포라, 소비에트 스포츠, 천일손, 축구, FC 폴리타젤, 고려인 정체성

## I. 서론

2024년은 고려인의 러시아 이주 16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이는 고려인들이 소련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소수민족으로 초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존재감을 드러내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소비에트 시기 고려인들의 초국가적 정체성은 소련 정부의 동화 정책과 사회주의 이념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고려인들은 소비에트화 과정에서 “소비에트 한인(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았으며, 역사적 조국과의 교류가 단절된 상태에서 러시아어와 소련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이로 인해 그들의 초국가적 정체성은 소련이라는 국가적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작동하였으며, 사회주의적 이념과 국가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소련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중심이 되었다(Yang 2020, 335-337).

한편, 초국가주의를 학술적으로 개념화한 실러,바쉬,블랑-스잔튼(Schiller et al. 1992, 1)은 이를 이민자들이 정치·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역사적 조국과 거주국을 연결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역사적 조국인 북한의 사회주의화와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재건을 위해 고려인들이 파견된 사례는 현대적인 초국가적 정체성 형성의 한 유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들은 거주국인 소련의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북한과의 문화적·경제적 교류를 통해 역사적 조국의 정체성과 결합된 복합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다.

스포츠와 공연 예술은 고려인들이 소련 사회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링컨(Lincoln 2000, 351-352)은 소련에서 스포츠는 민속공연예술과 함께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스포츠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소비에트 시민이라는 초국가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정치적 수단으로도 기능하였다. 공연 예술 분야에서는 현재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고려극장이 약 100년에 걸쳐 고려인의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콜호스들의 경제적인 발전은 고려인들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이를 통해 1970-80년대 김 넬리(기계체조), 김 미론(여자 필드하키), 채 유리(복싱) 등 다수의 고려인 스포츠 마스터들이 배출되었다. 축구분야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안 드미트리와 안 미하일 형제, 카자흐스탄의 FC 카이라트와 FC 드네프르의 송 에두아르드, FC 카이라트의 오가이 드미트리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보다 앞서 천일손<sup>1)</sup>(Чен Ир Сон, Андрей Буирович, 1921-1984)은 1940년대에는 기량이 뛰어난 축구 선수로 1950년대에는 지도자로 활동했으며 구소련에서 처음으로 해외(북한) 축구팀을 지도한 축구 분야의 선구자였다(Шукурзода М. 14/03/03).<sup>2)</sup> 1965년 천일손은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콜호스 축구팀 FC 폴리타젤(Политотдел)의 감독으로 부임하였고, 1년 만인 1966년 전소련 연방 챔피언십에서 《A》 클래스 2그룹 3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소비에트 사회 내에서 고려인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후 그는 고려인을 넘어 중앙아시아 스포츠 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레닌기치에는

1) 그동안 Чен Ир Сон은 한국어로 '정일성'으로 기재되었다(김 В.Н. и др. 2020, 180). 저자는 레닌기치와 고려일보의 기사에서 그의 이름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그의 이름이 언급된 한국어 기사를 찾지 못했다. 월곡고려인문화관 '겉'의 김병학 관장은 전화면담을 통해 그의 이름을 한국어로 표기할 때 '천일손'임을 확인해 주었다.(2025년 2월 12일 전화면담) 추후에 1차 자료 확보를 통해 이에 대한 근거를 확보할 것이다.

2) 출처: <https://koryo-saram.site/dmitrij-an-futbol-by1-dlya-nego-smyslom-zhizni-intervyu-s-bratom-velikogo-mastera-futbola-mihaila-ana/> (검색일: 2025.02.13.).

FC 폴리타젤의 축구경기에 대한 결과는 다루고 있지만 천일손 감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기간 중에 고려일보에서 1966년 북한 축구팀의 월드컵 8강 진출을 언급하며 천일손에 대한 기사를 다뤘다(김 B. 02/06/14, 4).<sup>3)</sup>

그동안 소비에트 문화 연구 분야에서 스포츠 문화 연구(박원용 2019; Grant 2013; Edelman 1993; Riordan 1972, 1977)는 간헐적으로 수행되었으나, 고려인 스포츠 문화에 대한 학술적 접근(양민아 2020a, 25-56; 2020b, 101-130; 2022, 183-212; 2023, 177-206; Chang & Park, 2013, 1-19; Yang 2020, 334-365)은 극히 드물었다. 2021년 천일손 탄생 100주년을 맞아 카자흐스탄 스포츠 웹진 Sportinfo와 Казахская правда는 그의 전문성과 인간적 면모를 조명하는 특집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학술적으로는 조명되지 못했다.

천일손이 1958년부터 1960년까지 북한 축구팀의 코치 및 자문으로 활동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1966년 제8회 FIFA 월드컵에서 북한 국가대표팀은 16강에서 강호 이탈리아를 1:0으로 제압하며 8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당시 팀을 이끌었던 감독 명례현(1926-?)을 비롯한 주전선수들 중 11명 중 9명이 천일손에게 훈련을 받았다(Sportkaz 23/08/06<sup>4)</sup>; Пак И.Т. 2002, 585). 천일손이 북한 축구의 기초를 다지고, 세계적인 무대에서 주목받을 수준으로 실력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중앙아시아 축구 전문가들과 고려인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활동한 많은 고려인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활동이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작용한다.

해방 이후, 북한 건설에 다양한 분야에서 고려인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나, 고려인 역사학자 김 게르만(김 Герман, 2020: 12)과 북한 연구자 란코프(Ланьков А.)는 북한 역사에서 고려인들의 공헌이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관련 문서 또한 오랜 기간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김 G. 2020: 20-21). 북한에서 활동한 고려인들에 대한 연구(김국후 2015; 란코프 1995, 133-165; 우동현 2016; 장학봉 2006; 조수룡 2017, 246-287; Chong-Sik Lee, Ki-Wan Oh 1968, 279-288; Selivanov I. 2017, 137-156; Dae-Sook Suh 1987, 101-128; 김 G. и др. 2020, 2024; 김 G. 2021, 1-15; Мен Д.В. 2015, 144-152; Сон Ж.Г. 2015, 153-159)도 간헐적으로

3) 고려일보 기자로 재직했던 월곡고려인문화관 ‘결’의 김병학 관장은 당시에는 비밀유지의 이유로 레닌기치나 고려일보에서 천일손의 북한 활동에 대한 언급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당시 고려인 사회가 고려극장의 예술인들에 비해 스포츠인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천일손에 대한 기사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설명한다(2025년 2월 12일 전화면담에서).

4) 출처: <https://www.sportinfo.kz/blog/show/id/371.html> (검색일: 2025.01.16.).

이루어졌으며, 그 대상은 주로 정치인과 한국전쟁 참전 군인들에 한정되었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연구로는 북한 작가 조기천에 대한 연구(정상진 2005; 김낙현 2011, 215-246)가 수행되었다. 연구의 교차 검증을 위해 소비에트 스포츠 문화 관련 학술논문, 고려인 신문 레닌기치, 고려일보, 북한관계사료집, 그리고 북한에서 발행된 노동신문과 교원신문 등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고려인 축구선수이자 지도자로 활동한 우즈베키스탄 공훈 트레이너 천일손의 축구 활동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1920-80년대 소비에트 시기의 천일손의 축구 활동을 선수 활동기(1920-1954)와 감독 활동기(1955-1984)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가 수행한 체육 활동의 특징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논의를 전개한다. 이를 위해, 그의 생애와 업적을 함께한 선수들과 제자들의 구술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며, 천일손이 축구를 매개로 소비에트 연방(특히 중앙아시아), 북한, 그리고 국제 사회를 연결하며 민족과 국가를 초월한 통합을 이루어낸 사례를 탐구한다. 특히, 그가 북한에 축구 지도자로 파견된 사례는 고려인의 초국가적 정체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 사례로서, 고려인의 다층적인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천일손은 소련 내에서 축구 지도자로 성장한 후 북한에 파견되어 스포츠를 통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기여하였으며, 이는 고려인들이 역사적 조국과의 관계 속에서 전문적·문화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그의 활동은 소련과 북한이라는 두 사회주의 국가 사이에서 고려인의 정체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고 실천되었는지를 시사하며, 초국가적 정체성이 단순한 동화 과정이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확장되는 동적인 개념임을 입증한다.

본 연구는 고려인 이주 160주년을 맞아 소비에트 시기 스포츠 문화 속에서 고려인들의 체육 활동을 정리하고, 천일손의 축구 활동이 지닌 특수성과 역사적 의의를 조명하며, 이를 통해 고려인의 정체성과 스포츠 활동의 관계를 탐색하는 데 연구의 의의를 둔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고려인의 스포츠 활동을 초국가적 맥락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고려인 문화 연구의 학술적 연구 지평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II. 1920-1950년대 고려인들의 체육활동과 천일손<sup>5)</sup>

### 1. 1920-30년대 연해주 고려인들의 체육활동과 천일손의 유년기(1921-1937)

1917년 사회주의 혁명 이후, 전쟁으로 황폐화된 국가를 복구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소련 정부의 최우선 과제였다. 초기 소비에트 스포츠 정책의 핵심은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건전하며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새로운 소비에트 시민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소련 정부는 충군사 훈련국(Всевобуч, Всешбщее военное обучение, 1918-1923)과 공산주의 청년동맹(Комсомол, Комунистический Союз Молодежи, 1918-1991)을 조직하여 공장과 학교 내 다양한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며 젊은 노동자들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고, 공립학교에서도 체육 수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Столбов В.В и др., 2000: 179-180).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국민체육이 확산되었으며, 연해주의 한인들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한편, 사회주의 혁명 이전인 20세기 초부터 러시아 노동자들 사이에서 축구의 인기가 높아졌으며, 이는 1920년대 소비에트 각 지역에서 FC 스파르타크(1922, 모스크바), FC 디나모(1923, 모스크바), FC 제니트(1925,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의 주요 축구 클럽들이 창단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통적으로 유교의 영향을 받아 체육활동에 소극적이었던 고려인들은 소비에트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민족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단오절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고 단오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선봉신문에 따르면, 1926년부터 1936년까지 단오 체육대회에서는 축구 경기를 비롯한 배구, 사격, 육상 등의 근대 스포츠뿐만 아니라 장기와 씨름(각희) 등 민속 스포츠 경기 그리고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방독면 쓰고 달리기도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선봉 26/06/10, 1; 26/06/17, 3; 26/06/27, 3; 27/05/24, 2; 27/06/12, 6; 28/07/08, 4; 29/06/05, 3; 35/06/21, 4; 36/06/18, 4). 초기 소비에트 시기 연해주 고려인들의 체육활동은 고려인 사회를 결속하고 항일의식과 반제국주의 정신을 고취하는 동시에 1930년대에 들어 쿨락의 청산, 집단농장화 등의 소비에트화가 강화되며 소련의 시민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체육이라는 과도기적 성향을 띄며 발전했다.

1936년 8월 25일 연해주에서 개최된 제1차 지역 콜호스 스파르타키아다에서는 멀리뛰기, 달리기, 축구, 배구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고려인 선수들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주목을 받았다. 다른 지역에 비해 연해주에서는 콜호스 스파르타키아다가

5) 1920-50년대 소비에트 스포츠와 고려인 스포츠 활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자의 이전 논문Yang(2020)과 양민아(2022)를 참조하기 바란다.

다소 늦게 시작되었으나, 이는 연해주 지역 고려인의 체육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С околoв А., 36/08/27, 1). 1937년 연해주의 고려인들은 더욱 발전된 신체 능력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되었다. 각 지역과 단오 체육대회에서는 축구 경기가 자주 개최되었으며, 고려인 마을, 학교, 콜호스마다 자체 축구 클럽을 보유하고 있었다. 축구는 고려인들이 특히 선호하는 스포츠 중 하나였으나, 이 시기에 고려인 스포츠 스타가 배출되지는 않았다. 1937년 5월 연해주에서 열린 13개 축구 클럽이 참가한 17세 이하 축구 대회에서 8번 고려인 학교 축구팀의 함 모이세이(Хам Мойсей)와 고려인 스탈린 클럽의 15세 골키퍼 관독손(Кван Дук-сон)이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Гор яинов П., 37/05/27, 4). 이는 당시 고려인들의 체육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천일손의 유년기와 학창 시절에 대한 기록은 매우 제한적이다. 다만, 그는 1921년 8월 6일 극동공화국(ДВР)<sup>6)</sup> 블라디보스토크의 트램 철길 수리공의 집안에서 7형제 중 막내로 출생하였다.<sup>7)</sup> 1937년 가족들과 함께 카자흐스탄 우슈투베로 강제이주 되었다(Кан Р. 2005, 34; Ким Б. 02/06/14, 4; Чен Зоя 21/10, 6).<sup>8)</sup> 천일손은 1939년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전문 축구선수로 활동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그는 강제이주 이전 연해주에서 학창 시절 동안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경험하며 축구 선수로서의 기량을 함양했다. 그의 학창 시절에 대한 1차 자료가 확보된다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 2. 강제 이주 이후, 카자흐스탄에서 천일손의 축구 선수 활동(1937-1954)

1937년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과정에서 수많은 고려인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가족들은 흩어져 이산가족이 되었다. 이는 개인을 넘어 고려인 공동체 전체에 큰 트라우마가 되었다. 특히, 고려인 사회의 근간을 이루던 학교, 고려극장, 선봉 신문사, 라디오방송국 등의 기관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 이주 이후 고려인들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생존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 과정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이 발발하면서 고려인들은 또 한 번의 혼란을 겪었다.

6) 극동공화국(ДВР,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республика)은 1920년 4월부터 1922년 11월까지 3년간 존재한 러시아 극동지역 내 공화국이다.

7) 천일손의 부모님이 고려인 1세대, 1.5세대 또는 2세대인지 알 수 없기에 천일손의 세대 파악이 어렵다.

8) 그의 형제들 중 천치역(Чен Чи Эк)은 가족들과 심켄트로 이주되었다(Кан Р. 2005, 34).

천일손은 강제 이주 이후 학업과 선수생활을 병행하였다. 그는 1943년 심켄트 사범학교 역사학부를 마치고, 1952년 모스크바 국립 중앙 체육대학을 졸업(Пак И.Т. 2002; 585; Пак И.Т. 2017, 654)<sup>9)</sup>하며 늦은 나이지만 스포츠 교육자로서의 전문지식과 자질을 갖추게 되었다. 그의 딸 천조야(Чен Зоя 21/10, 6)<sup>10)</sup>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강제이주 이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같은 학교에 다녔던 서가이 엘레나(Шегай Елена)와 타슈켄트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후 알마아타에서 그녀와 결혼했다. 그들은 슬하에 1남 1녀 첫째 아들 천유리(1949-), 둘째 딸 천조야(1951-)를 두었다.

그는 소련 내 축구의 성장과 인기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축구 선수로 활동을 시작했다. 비공식적으로는 1938년 심켄트에서 축구 선수로 경기에 참가하였으며(Тугегенов Г. 23/08/06)<sup>11)</sup>, 1939년에는 공식적으로 카라간다 FC 디나모(Динамо)에 입단하였다. 이후 그는 실력을 인정받아 알마아타로 진출하여 1945년부터 FC 디나모에서 공격수로 활약하였다.<sup>12)</sup> 1940-50년대 FC 디나모는 카자흐스탄 최고의 팀으로 소련 챔피언십에 출전하여 중앙아시아 지역 예선을 통과하고, 지역 간 결승전에 진출하였다. 카자흐스탄의 저명한 스포츠 기자이자 FC 카이라트(Кайрат)<sup>13)</sup>의 노장 선수였던 디아스 오마로프(Омаров Д.И)는 당시 천일손을 날렵한 움직임과 뛰어난 점프력을 겸비한 탁월한 기량을 가진 선수로 기억한다. 특히, 그는 정교한 기술과 골 결정력이 뛰어난 카자흐스탄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였다. 경기 중 천일손은 고려인 선수 김 레프(Ким Лев)<sup>14)</sup>와 환상적인

9) 자료들마다 천일손의 모스크바 국립 중앙 체육대학을 졸업연도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백과사전에는 1952년(Пак И.Т. 2002; 585; Пак И.Т. 2017, 654). 고려사람 백과사전에는 1951년(Ким В.Н. и др. 2020, 180)으로 기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백과사전에 기록을 따라 1952년으로 기재하였다.

10) 출처: <https://www.arirang.ru/archive/rk/2021/RK.2021.213.pdf> (검색일: 2025.02.13.).

11) 출처: [https://www.sportinfo.kz/news/show/name/velichie\\_lyudey\\_opredeljaetsja\\_delami\\_andrey\\_chen\\_ir\\_son\\_%E2%80%93\\_chelovek\\_iskrenne\\_slujivshiy\\_futbolu\\_foto\\_103135.html](https://www.sportinfo.kz/news/show/name/velichie_lyudey_opredeljaetsja_delami_andrey_chen_ir_son_%E2%80%93_chelovek_iskrenne_slujivshiy_futbolu_foto_103135.html) (검색일: 2025.01.16.).

12) 천일손의 FC 디나모(Динамо) 입단 시기는 1943 또는 1944(Рыжков И. 21/08/06), 1945(Сарсеков С. 21/08/05), 1946년(Footballfacts)으로 자료들마다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45년에 촬영된 디나모 알마아타 축구선수들 사진(Сарсеков С. 18/02/21)에 천일손이 확인되기에 이 자료를 근거로 그의 FC 디나모 입단 연도를 1945년으로 하였다.

13) FC 카이라트(Кайрат)는 1954년 알마아타 FC 디나모를 기반으로 설립되었다. 1956년 4월 27일 소련 직업노동조합 중앙평의회(ВЦСПС СССР)의 대표 그리신(Гришин В.)과 1956년 6월 1일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각료회의 쿠나예프(Кунаев Д.)의 결정에 따라 자발적 스포츠 단체(ДСО) 우로자이와 콜호스시(колхозшы)가 통합되면서 1956년 6월 18일 자발적 농촌 스포츠 단체(ДССО)가 창설되며 FC 카이라트로 개칭되었다(История ФК Кайрат 참조).

14) 이 인터뷰에서 오마로프 디아스(Омаров Д.И. 1940-2020)는 당시 천일손과 함께 활동했던 고려인 축구선수를 김 블라디미르로 구술하고 있지만, 당시 알마아타 FC 디나모에서 활동했던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상대 팀을 강하게 압박하는 플레이를 펼쳤다. 이러한 기량을 바탕으로 그는 카자흐스탄 축구계에서 절대적인 실력을 가진 선수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선수들과 축구 팬들은 물론,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브레즈네프(Брежнев Л.И., 1906-1982)를 비롯한 소련 지도부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이는 고려인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Sportkaz 23/08/06).

1947년 천일손은 소련 챔피언십 2부 그룹에 속한 FC 스파르타크로 이적하여 1년간 활동했으며, 이 시기 카자흐스탄의 유명한 축구 선수들인 비시냐코프(Вишняков А.К.), 곤차로프(Гончаров), 카료프(Карев Н.Н.), 푸틴체프(Путинцев М.Т.), 로트(Рот Т.Е.П., 골키퍼), 야키모비치(Якимович А.Г.) 등과 함께 뛰었다. 1948년 알마아타 FC 디나모로 복귀한 그는 12경기에서 6골을 기록하며 팀 내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올렸고, 8월 22일 FC 스파르타크와의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성공시켰다. 이후 1953년까지 6년간 FC 디나모의 공격수로 활약하였으며, 1954년에는 FC 로코모티브<sup>15)</sup>로 이적하여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였다(Рыжков И. 21/08/06; Сарсеков С. 21/08/05).<sup>16)</sup> 천일손은 고려인으로 소비에트 축구계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다.

1955년부터 그는 FC 우로자이(구 FC 로코모티브)에서 트레이너 및 감독으로 활동하며 선수 생활을 마친 후 지도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Рыжков И. 21/08/06). 그가 카자흐스탄에서 활동했던 축구팀은 아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1937년 강제이주 이후, 카자흐스탄에서 천일손이 선수로 활동했던 축구팀**

	연도	축구팀(도시) / 클래스
1	1939	FC 디나모(카라간다)
2	1945	FC 디나모(알마아타) / 그룹 3
3	1947	FC 스파르타크(알마아타) / 그룹 2
4	1948-1953	FC 디나모(알마아타) / 클래스 B
5	1954	FC 로코모티브(알마아타) / 클래스 B

출처: FootballFacts. <https://footballfakts.ru/person/20906-chenirsonandreybuirovich> 에서 재정리 (검색일: 2025.01.13.)

고려인 축구선수는 김 레프(Ким Лев Наумович, 1921-)였다.

15) 1954년에 FC 로코모티브는 FC 우로자이로 개칭했다. 1955-1956년 천일손은 FC 우로자이에서 트레이너로 활동한다.

16) 출처: [https://www.sportinfo.kz/news/show/name/100\\_letiyu\\_chen\\_ir\\_sona\\_posvjasshaetsja\\_171482.html](https://www.sportinfo.kz/news/show/name/100_letiyu_chen_ir_sona_posvjasshaetsja_171482.html) (검색일: 2025.01.15.); 출처: <https://sportsarena.kz/ru/blog/football/andrej-cen-ir-son-pervaa-pobeda-vostoka> (검색일: 2025.01.15.).

### Ⅲ. 1950-80년대 천일손의 축구 감독 활동

#### 1. 북한에서 축구 감독 활동(1958-1960)<sup>17)</sup>

이 절에서는 1950-60년대 북한과 소련 간의 문화 교류 관계 속에서 천일손의 활동을 조명하고자 한다. 천일손은 1955년부터 트레이너로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55-56년 FC 우로자이(Урожай)에서 지도자로, 1957년 알마아타 FC 카이라트(Кайрат, 구 우로자이)에서는 축구단장을 맡았다. 소련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 제1서기관 강병률은 1957년 10월 12일 알마아타에서 축구 감독으로 활동하는 천일손<sup>18)</sup>이 북한에서 축구 감독으로 일하고 싶다는 청원서를 접수하였고,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이 이를 소련 외무성에 긍정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기록했다. 이에 대해 소련 외무성 극동과 제1서기관 삼소노프는 해당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하였다(삼소노프, 1957. 10.12.). 이러한 경로로 천일손은 1958년 6월 5일 공식 파견되었다. 천조야가 1958년 북한에 도착했을 때 당시 북한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큰아버지 천치역(Чен Чи Эк)<sup>19)</sup>을 만난 것(Чен Зоя, 21/10, 6)을 기억하는 것으로 보아 천일손의 북한행에 그의 형의 조력도 있었을 것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1948년 9월 9일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후, 북한의 정치 및 사회 체제는 소련 군부와 정치 고문들의 주도로 설계되었다. 북한은 아시아에서 소련군 점령을 받은 유일한 국가로, 소련 모델을 거의 그대로 채택한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하였다(Ланьков, 2019, 7). 이 과정에서 소련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은 역사적 조국인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기꺼이 동참했다. 그러나 1949년 이후 소련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규모 인력을 북한에 파견한 사례는 거의 없다. 1950년대 초, 북한은 점진적으로 소련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란코프 1995, 154-155). 1953년 7월 허가이 숙청 이후, 북한 사회에서

17) 천일손이 북한에서 중앙아시아로 돌아온 시기는 1960년(Пак И.Т. 2017, 4), 1962년(Ким Б. 02/06/14, 4), 1964년(Сарсеков С. 21/08/05)으로 자료마다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북-소 체육교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1960년이 타당하다고 본다.

18) 이 자료에서는 천일손을 정일송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번역 과정에서 생긴 오류이다.

19) 천치역(Чен Чи Эк, 1912-1985) 1912년 12월 3일 블라디보스토크의 트랩 철길 수리공 집안에서 출생하였다. 8세에 9년제 학교에 입학하여, 1929년에 졸업하였다. 1930년 움스크의 시베리아 도로 전문학교에 입학하였다가 2년 후 모스크바 도로전문학교로 전학하여 1936년에 졸업하였다. 1937년 가족과 함께 카자흐스탄 심켄트로 강제이주 되었다. 1946년 11월 9일 부인 박 카피톨리나(Пак Капитолина А., 1916-?)와 북한으로 이주했다. 그들은 슬하에 1남 2녀(천 블라디미르, 천 발렌티나, 천 라리사)를 두었다. 그는 북한에서 조선인민군 소장(генерал-майор)으로 국무위원회 차량관리 국장(начальник автоуправления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으로 일했다(Ким Г. и др. 2020, 466, 488; Кан Р. 2005, 34).

고려인의 입지는 약화되었으며, 1955년부터 본격적으로 고려인들을 정치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195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 복구를 지원했던 소련의 기술 전문가들도 대부분 계약 기간이 끝난 후 귀국하였다. 1958년부터 김일성은 고려인 숙청과 추방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란코프 1995, 157-160).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관계의 경색 속에서도, 북한의 전후 대내외적 입지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은 지속되었으며, 이를 위한 소련의 문화적 원조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1948년 6월 11일 북한 중앙 체육지도위원회는 소련과 조소 체육 분과 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1956년에는 양국 체육 및 스포츠 위원회 간의 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협정을 체결하였다(오르위드 게., 허정숙, 1956.09.07.). 1957년 10월 17일-21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조소 문화 협조 회담에서는 1958년 양국 간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되었다(콤무니케, 1957.10.). 특히, 이 회담에서는 양국 간의 체육 및 스포츠 교류 확대가 논의되었으며, 북한과 소련 간의 직접적인 교류를 활성화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천일손의 북한 파견은 매우 시의 적절했다.

1950년대 후반, 북한은 국제 경기 참가를 목표로 스포츠 기술 향상에 주력하였으며, 축구뿐만 아니라 농구, 배구, 육상 등 다양한 종목에서 실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소련뿐만 아니라 동유럽 및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들(중국, 베트남 등)과의 친선 경기를 개최하며 경기력을 끌어올렸다. 1957년 6월 북한은 국제축구연맹(FIFA) 가입 승인을 받았으며, 1958년 6월 15일 공식적으로 가입을 완료하였다(로동신문, 58/06/15, 3). 천일손은 북한에서 북한 유소년 축구단과 평양 국가대표 축구단 지도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6명의 북한 스포츠 마스터를 양성하였다(Пак И.Т. 2017, 654). 나아가 그는 소련 축구팀과의 친선 경기를 조직하고, 소련 축구 전술을 북한에 전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양한 활동으로 북한에서 점차 천일손의 지도력이 부각되기 시작하며 북한 축구계 인사들은 물론 선수들 또한 그를 '축구의 신'처럼 존경하였으며, 그에 대한 존칭으로 그를 '천동지'라 불렀다.

1958년부터 1960년까지 천일손이 북한에서 활동하던 기간 동안 북한을 방문한 소련 축구팀과의 경기 일정 및 경기 내용은 당시 로동신문과 민주조선 등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1959년 6월 6일 북한의 공화국 축구 분과 위원회 강기순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평양시 축구팀은 소련을 방문하여 FC 카이랏트와의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하였다(로동신문 59/06/23, 3). 이후 북한 선수들은 FC 카이랏트뿐만 아니라 타슈켄트 FC 파흐타코르, 모스크바 FC 로코모티브 등과 친선 경기를 가졌으며,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였다(Миленькая Ю., 21/08/06).<sup>20)</sup> 당시 FC 파흐타코르의 공격수로 활동했던 고려인 축구선수

20) 출처: <https://kazpravda.kz/n/vlyublennyy-v-futbol/> (검색일: 2025.01.16.).

안 드미트리(Ан Д.И. 1939-2018)는 평양 축구팀을 이끌고 타슈켄트를 방문한 천일손과 축구선수와 감독으로 서로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첫 만남을 기억하며 그를 축구계의 선구자이며 가까운 스승이자, 교육자 그리고 전문가로 존경한다. 그러나 안 드미트리는 FC 파흐타코르가 북한과의 친선경기에서 2:1로 승리한 것(Шукурзода М. 14/03/03)으로 구술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 기록과 상반되기에 추후에 확인이 필요하다. 1961년 9월 소련을 방문한 김응서 단장과 평양시 축구선수단 22명은 9월 23일 모스크바 디나모 경기장에서 소련의 최강팀 중 하나인 모스크바 FC 스파르타크와의 경기에서 2:1로 승리(로동신문 61/09/27, 4)를 거두며 그 실력이 일취월장했다. 아래 <표 2>에서 1956-61년까지 소련 축구팀과의 친선 축구 경기 결과를 보면 북한 축구팀의 실력이 소련팀과 견주어도 크게 뒤지지 않을 만큼의 경기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활발하게 진행된 북-소 친선 축구경기도 1961년 북-소 문화교류에서 체육단 교류의 축소가 논의되며 1961년 10-11월 FC 아방가르드와의 친선경기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쥬꼬브 계, 1961). 1960년 천일손이 중앙아시아로 돌아온 것도 북-소간의 체육문화교류 중단의 여파로 추정한다.

〈그림 1〉 1959년 11월 FC 카이라트의 북한 방문 당시  
(첫째 줄 오른쪽에서 첫 번째가 천일손 감독으로 추정됨)



출처: [https://www.sportinfo.kz/news/show/name/velichie\\_lyudey\\_opredeljaetsja\\_delami\\_andrey\\_chen\\_ir\\_son\\_%E2%80%93%93\\_chelovek\\_iskrenne\\_slujivshiy\\_futbolu\\_foto\\_103135.html](https://www.sportinfo.kz/news/show/name/velichie_lyudey_opredeljaetsja_delami_andrey_chen_ir_son_%E2%80%93%93_chelovek_iskrenne_slujivshiy_futbolu_foto_103135.html)  
(검색일: 2025.01.16.)

이렇듯 1960년대 초 북한은 축구뿐만 아니라 이미 다양한 종목들에서 세계적인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홍성보 2015: 278). 1959년 FC 카이라트와의 경기 이후에 1960년에는 보다 실력 있는 소련 축구팀을 파견할 것을 소련에 요구(로마놉스키 에스 1960)할 정도로 축구분야에서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북한의 언론과 체육관련 서적들에서 이 시기 북한의 경기력과 기술이 향상되고 있음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어떻게 훈련이 이루어졌는지 지도자에 대한 언급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표 2〉 북한을 방문한 소련의 축구팀과 친선 축구 경기들

	방문일정	방북한 소련 축구팀(인원수)	일정: 북한팀(결과_ 북한팀:소련팀) 도시, 경기장
1	1956.10.	모스크바, FC 토르페도	1. 구체적인 경기내용 없음
2	1957. 10.31.- 11	벨라루스, 민스크 FC 스파르타크(20명) 단장: 토크예프 G.A. (Токуев, Г.А)	2. 11. 3. 평양 내무성 체육 협회팀(소련승_ 2:3) 평양, 모란봉 경기장 3. 11. 7. 조선인민군 체육 지도원 중앙 강습소팀 (북한승_ 2:1) 평양, 모란봉 경기장 4. 11. 11. 함흥 교통성 체육 협회팀 (소련승_ 1:2) 함흥, 함흥시 경기장 5. 11. 14. 개성 조선인민군 체육 지도원 중앙 강습소팀 (소련승_ 0:3) 개성, 개성시 경기장 6. 11. 17. 평양시 축구팀 (무승부_ 1:1) 평양, 모란봉 경기장
3	1958. 10-11	우크라이나, 돈바스 FC 샤희썸르	7. 10. 30. 2.8팀(소련승_ 1:2) 청진, 청진시 경기장 8. 11. 2. 기관차(무승부_ 1:1) 평양, 모란봉 경기장 9. 11. 9. 평양시 종합팀(무승부_ 1:1) 평양, 모란봉 경기장
4	1959. 11	카자흐스탄 알마아타 FC 카이라트 단장: 아흐메토프 K. (Ахметов, К.)	10. 11. 15. 2.8팀 (북한승_ 2:1) 평양, 동평양 경기장 11. 11. 17. 기관차팀 (소련승_ 1:2) 평양, 동평양 경기장 12. 11. 19. 번개팀 (북한승_ 2:1) 신의주, 10월 경기장 13. 11. 22. 매봉산 축구팀(소련승_ 0:2) 함흥, 함흥시 경기장

	방문일정	방북한 소련 축구팀(인원수)	일정: 북한팀(결과_ 북한팀:소련팀) 도시, 경기장
5	1960. 10.28-11	FC 크릴리야 소비토프 (22명) 단장: 보리소프, K.A (Борисов K.A.)	14. 10. 30. 2.8팀(북한승_1:0) 평양, 모란봉 경기장 15. 11. 4. 월비산팀 (북한승_1:0) 11. 6. 중앙 체육 강습소팀 (북한승_8:3) 평양, 모란봉 경기장
6	1961. 10-11.	FC 아방가르드	16. 10. 29. 중앙 체육 강습소팀 (소련승_1:2) 원산, 신평경기장

출처: 본 표는 저자가 1956-1961년 로동신문과 민주조선 기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천일손 감독은 3년간(1958-1960) 북한에서 체류하며 북한 축구 발전의 기반을 다진 숨은 조력자로 평가된다. 특히, 1966년 월드컵에 참가한 북한 국가대표팀 선수 11명 중 9명을 발굴하였으며, 북한 축구의 국제적 도약에 기여하였다. 월드컵을 앞두고 천일손은 소련 축구 연맹의 국가 대표팀의 자문으로 모스크바에 초청되어 소련 국가 대표팀 감독 니콜라이 모로조프(Морозов Н.П. 1916-1981)와 전략을 논의할 정도로 그의 축구 전문성은 소련에서도 인정받았다(Миленькая Ю 21/08/06). 소비에트 축구의 전설이자, 모스크바 FC 스파르타크의 창립자 스타로스틴(Старостин) 형제도 천일손의 실력을 인정하여 항상 그를 존중했고, 모스크바에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었지만 천 감독이 거절한 일은 널리 알려져 있다(Ким Б 02/06/14, 4).

1966년 제8회 월드컵에서 북한 국가대표팀은 조별 리그전에서 소련(7월 12일), 칠레(7월 15일, 1:1 무승부), 이탈리아(7월 19일)와의 경기에서 1:0으로 승리를 거둬 8강에 진출하며 세계 축구 팬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비록 7월 21일 준준결승전에서 포르투갈에 5:3으로 패배하였으나(레닌기치 66/07/12, 4면), 이는 북한 축구의 도약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소련의 스포츠 평론가 코노발류크(Коновалюк Г.)는 북한 축구팀이 누구에게나 강한 도전이 될 수 있는 '수수께끼 축구단'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이미 수년간 소련과의 친선 경기에서 수준 높은 경기력을 입증했다고 평가하였다(게오르기 꼬노알류크 66/07/09, 4). 이러한 북한 축구의 신화는 2001년 영국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다니엘 고든(Daniel Gordon, 1972-)이 제작한 BBC 다큐멘터리 '천리마 축구단(The Game of Their Lives)'을 통해 재조명되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1966년 월드컵에 참가했던 축구선수들<sup>21)</sup>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북한 축구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21) 1966년 제8회 월드컵에 참가한 북한 축구대표팀 선수들은 리찬명, 박리섭, 신영규, 강봉철, 림중선, 임성휘, 박두익, 박승진, 리근학, 강룡운, 한봉진, 김승일, 오윤경, 하정원, 양성국, 리동운, 김봉환, 계승운, 김영길, 류창길, 안세복, 리치안이다.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천일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 2.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축구 감독 활동(1965-1974)<sup>22)</sup>

천일손 감독은 북한에서 귀국한 이후, 1961년부터 1965년까지 카자흐스탄 농업 전문학교 체육학과에서 근무했다. 그리고 1965년부터 3년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주 상치르치크 유역에 위치한 고려인 콜호스 축구팀인 FC 폴리타젤(Политотдел)<sup>23)</sup>의 감독으로 스카우트되었다. 1965년 FC 폴리타젤이 콜호스 축구팀으로는 처음으로 《B》클래스에서 《A》클래스로 승격되었고(채병도, 주송학 65/02/09, 3), 이를 의식한 고려인 콜호스 폴리타젤의 대표 황만금(Хван Ман Гым, Хван Т.Г. 1919-1997)이 천일손을 영입한 것으로 보인다.

황만금은 “하루에 10분을 운동하면 10년이라는 추가 시간이 생긴다”(김브루트·김미하 일 2015, 95)라는 슬로건 하에 콜호스원들의 체육 활동의 생활화를 강조하였다. 그의 주도 아래 1958년에는 8,000석 규모의 축구 경기장, 1967년에는 137만 루블을 투자하여 15,000석 규모의 두 번째 경기장이 콜호스에 건설되었다(Самоуков Ф.И, Токарев М.И 1967, 269; 김원봉 67/07/28, 4). 콜호스 내부에서 축구는 노동자들의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하였고, 외부에서는 다른 콜호스들과의 교류 및 경쟁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1965년 새로 부임한 천일손은 FC 폴리타젤이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강력한 축구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당시 FC 폴리타젤 선수였던 만남 야쿠보프(Якубов М. 1938-)는 축구팀은 콜호스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으며, 소련 전역에서 뛰어난 선수들이 영입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대표적으로 모스크바 FC 디나모의 발레리 파데예프(Фадеев В.В. 1939-2021), FC 스파르타크의 이반 바를라모프(Варламов И.А. 1939-2020), 빅토르 치스타코프(Чистяков В.В. 1937-2006) 그리고 유리 이바노프(Иванов Ю.Н. 1939-1984), 상트페테르부르크 FC 제니트의 니콜라이 라자노프(Рязанов Н.Н. 1938-1993) 그리고 1959년 FC 파흐타코르에서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던 공격수

22) 1950-60년대 고려인들의 농촌 콜호스 스포츠 활동과 FC 폴리타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자의 이전 논문 “1950-60년대 소비에트 콜호스의 스포츠와 유라시아 지역의 초국가적 축구문화 연구”(2022)를 참조하기 바란다.

23) FC 폴리타젤(Политотдел)은 1959년 타슈켄트 주 FC 파흐타코르(Пахтакор)로 결성되어 1963-95년 FC 폴리타젤, 1996-2003년에는 FC 두스틀릭(Дустлик)으로 그 명칭이 3번 변경되었다(참조: История футбольных клубов-СНГ-Узбекистан. 출처: [http://lenadvorkina.narod.ru/FOOTBALL\\_2013/FC\\_SNG/Uzbek13.htm#\\_Точ68883087](http://lenadvorkina.narod.ru/FOOTBALL_2013/FC_SNG/Uzbek13.htm#_Точ68883087) (검색일: 2025.01.20)).

안 드미트리 등이다. 특히 안 드미트리는 당시 군 복무중이었는데 황만금과 천일손은 모든 정치력을 동원해 안 드미트리를 조기에 제대시켜 팀 영입에 성공(Шукурзода М. 14/03/03)했다는 일화가 있다. 천 감독은 엄격하면서도 공정한 지도자로서 모든 경기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한편,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어떤 상대와도 맞설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이러한 천 감독의 세심한 지도 아래 팀은 강력한 전력을 갖추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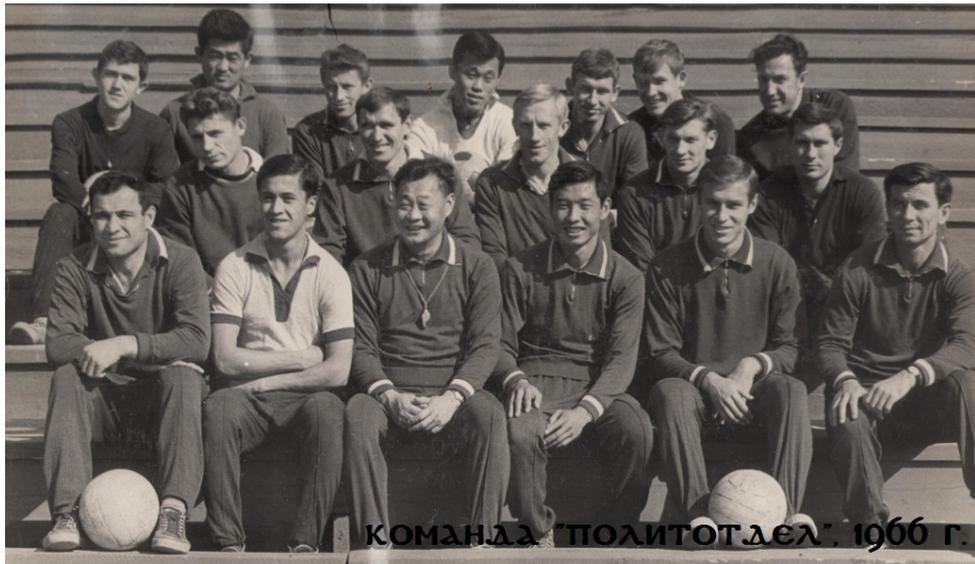
천일손은 부임한 지 1년 만인 1966년 농촌 콜호스 축구팀으로서 유일하게 전연방 소련 축구 챔피언십<sup>24)</sup> 《A》클래스 2그룹 3조에 참가하여 조 1위를 차지하며 《A》클래스 1그룹으로의 승격 기회를 얻는 쾌거를 이뤘다. 그러나 철저하게 계급사회였던 소련 프로 축구리그에서 FC 폴리타젤은 농촌 콜호스 출신이라는 이유로 “1부 리그 진출은 시기상조”라는 콜호스 위원회의 정치적 결정(Sportkaz 23/08/06)에 따라 1부 리그 승격에는 실패하였으나, 최종 《A》클래스 2그룹에서 3위를 기록하며 팀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이 성과로 감독을 위시한 팀의 모든 선수들은 우즈베키스탄 공훈 스포츠 마스터 칭호를 받으며, 소련 내 고려인 공동체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시 농촌 콜호스 축구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반영된 상징적인 사건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천 감독은 FC 폴리타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에는 만족했지만 같은 기간 런던에서 개최된 제8회 월드컵에서 북한 대표팀과 함께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쉬워하며, 만약 자신이 현장에서 선수들을 지도할 수 있었다면 북한은 8강에서 포르투갈을 꺾고 4강에 진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Sportkaz 23/08/06).

비록 정치적 이유로 FC 폴리타젤은 1부 리그 승격에는 실패했지만, 1960년대 고려인 콜호스 폴리타젤은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고려인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고려인들이 소비에트 체제 내에서 뛰어난 문화적 성취를 이루었음을 입증하였다. 황만금은 “고려인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소련의 스포츠 분야에서도 최고와 경쟁할 수 있다”(Chang Jon, Park Jae 2013, 6)는 메시지를 소련 사회에 전달하고자 했으며, FC 폴리타젤의 성과를 통해 고려인들이 축구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이는 고려인들이 소비에트 사회에서 건전하고 성실한 시민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황만금은 우즈베키스탄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및

24) 소련의 축구 리그는 1950-62년 2단계: 《A》, 《B》클래스; 1963-69년 3단계: 《A》클래스 1그룹, 《A》클래스 2그룹, 《B》클래스; 1970년 3단계: 《A》클래스 1그룹, 《A》클래스 2그룹, 《A》클래스 3그룹, 1971-1991년 3단계: 프리미어 리그, 1부 리그, 2부 리그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언급된 시대에 따른 리그 분류를 사용했다. 참조 Система футбольных лиг СССР. 출처: [https://ru.wikipedia.org/wiki/Система\\_футбольных\\_лиг\\_СССР](https://ru.wikipedia.org/wiki/Система_футбольных_лиг_СССР) (검색일: 2025.01.20.).

최고회의 국회의원 등 공화국 내 주요 정치 직책을 맡으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또한, 콜호스 폴리타젤은 1961년 흐루쇼프, 1970년 브레즈네프 등 소련의 고위 인사 및 해외 국민들이 방문하는 명소로 자리 잡으며, 콜호스의 경제적 성공과 함께 문화 발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었다.

〈그림 2〉 1966년 FC 폴리타젤 선수들과 천일손 감독  
(첫째 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천일손 감독)



출처: [https://www.sportinfo.kz/news/show/name/velichie\\_lyudey\\_opredeljaetsja\\_delami\\_andrey\\_chen\\_ir\\_son\\_%E2%80%93\\_chelovek\\_iskrenne\\_slujivshiy\\_futbolu\\_foto\\_103135.html](https://www.sportinfo.kz/news/show/name/velichie_lyudey_opredeljaetsja_delami_andrey_chen_ir_son_%E2%80%93_chelovek_iskrenne_slujivshiy_futbolu_foto_103135.html)  
(검색일: 2025.01.16.)

그러나 천 감독의 커리어가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1967년 FC 폴리타젤은 3조에서 8위를 기록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두었다. 이에 천 감독은 1968년 카자흐스탄의 우스티-카멘노고르스크에 위치한 FC 보스토크(Восток)로 이적하였다. 그의 지도 아래 FC 보스토크는 창단 5년 만인 1968년 카자흐스탄 장관회의 주최 축구대회에서 사상 최초로 공식 우승을 차지하였다(Сарсеков С. 21/08/05). 이어 1969년 그는 카자흐스탄의 명문팀 알마아타 FC 카이라트의 감독직을 맡았지만, 시즌 초반 중·하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 충분한 승점을 확보하지 못하여 승점 1점 차이로 1부 리그 잔류에 실패하고 2부 리그로 강등되는 위기를 맞았다(Sportkaz 23/08/06). 이후, 1974년 첼리노그라드의 FC 디나모에서 지도자로 활동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감독직에서 은퇴하였다. <표 3>에서는 천일손 감독이 감독으로 활동했던 축구팀들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3> 1950-70년대 천일손이 감독으로 활동했던 축구팀

	연도	축구팀(원어, 도시)	역할
1	1955-56	FC 우로자이(Урожай, 알마아타)	트레이너
2	1957	FC 카이라트(Кайрат, 알마아타)	단장
3	1958-60	북한 평양	선임 트레이너
4	1965-67	FC 폴리타젤(Политотдел, 타슈켄트주)	선임 트레이너
5	1968	FC 보스토크(Восток, 우스티-카멘노고르스크)	선임 트레이너
6	1969	FC 카이라트(Кайрат, 알마아타)	선임 트레이너
7	1974.1.- 7.	FC 디나모(Динамо, 첼리노그라드)	선임 트레이너

출처: FootballFacts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하였다.

<https://footballfakts.ru/person/20906-chenirsonandreybuirovich> (검색일: 2025.1.13.).

### 3.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에서 축구 감독 활동(1977-1984)

천일손은 프로 축구팀 감독으로 경력을 마무리한 후, 1977년부터 1984년까지 7년간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이하 카즈구, КазГУ)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대학 축구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는 학생들에게 축구를 전파하는 한편, FC 카즈구(FC КазГУ)를 창단하여 대학 축구의 활성화 및 전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80년에는 서아프리카 베냉 공화국에 파견되기도 하였다(김 B.H. 2020, 180). 2021년 천일손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에서 그에게 배움을 받았던 제자들이 당시의 일화를 구술하였으며, 본 절에서는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의 대학 내 활동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은 국제 스포츠 대회 참가를 본격화하면서 체육정책을 엘리트 체육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1970-80년대는 소련이 올림픽 무대에서 미국과 경쟁하며 메달 획득을 목표로 엘리트 선수 양성에 총력을 기울였던 시기였다. 당시 소련 시민들은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며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특히 축구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였다. 천일손은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에 부임한 후, 첫 학기에 신입생들에게 축구를 지도하며 이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었다. 그는 훈련장에서는 뛰어난 지도자로 일상에서는 사려 깊고 따뜻한 태도로 학생들을 대하였다. 또한, 유머 감각을 지니면서도 축구에 있어서는 매우 진지한 태도를 견지하였다.

천 감독은 대학 축구를 조직적으로 발전시키고, 카자흐스탄의 주요 도시 및 공화국 내 대학 축구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그 결과, FC 카즈구는 카자흐스탄 대학 축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승리의 기록을 쌓아갔다. 카자흐스탄의 유명 스포츠 기자이자 카자흐 국립대 명예 축구 대표팀의 주장이었던 게니 툴레게노프(Тулегенов Г. 1962-), 졸업생 코나크바이 아부알린(Абуалин К.)과 게니 카즈베코비치(Казбекович Г.)는 FC 카즈구는 언론학부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축구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지니고 있었다고 회고한다. 실제로, 이들은 1980년 전국 대학생 건설 봉사단 축구대회에서 우승하였으며, 1981년 알마이타 시 축구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공화국 대회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알마이타에서 최고의 대학 축구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천 감독은 대표팀 선수들을 애칭으로 우수칼로프들(Ушкaлoвцы)<sup>25)</sup>이라고 불렀다.

천 감독은 단순히 아마추어 대학 축구팀을 운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축구에 재능있는 학생들은 전문 축구팀에 합류하여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당시 FC 카즈구는 소련 2부 리그 FC 카이라트 후보팀 및 체육대학 팀과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둘 정도로 뛰어난 경기력을 보유하고 있었다(Миленькая Ю. 21/08/06; Sportkaz 23/08/06). FC 카즈구에서 활약했던 주요 선수들로는 코나크바이 아부알린, 스라일 스마일(Смаил С.), 바흐트 마일리바예프(Майлибаев Б.), 알리베크 사테코프(Сатекoв А.), 알렉세이 코로첸코(Коротченко А.), 알틴바이 시힘베코프(Сихимбеков А.), 오자트 바이세르케예프(Байсеркеев О.), 카나트 라자코프(Разаков К.), 카디르 라토프(Рятов К.), 탈가트 카디로프(Кадыров Т.) 등이 있다(Миленькая Ю. 21/08/06).

천일손은 대학 내 학부 간 축구 경기에서 주심으로 활약하며, 그가 주관하는 모든 경기는 오케스트라 연주와 개·폐막식 퍼레이드, 깃발, 트로피, 메달 수여 등 프로 축구 경기처럼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FC 카즈구의 주장이자 최다 득점자였던 루다코프(Рудаков В. 21/08/04)<sup>26)</sup>는 천 감독은 축구를 “생각하는 스포츠”라고 강조한

25) 우수칼로프(Ушкaлoв)는 천일손 감독이 사용하던 별칭으로 때로는 다정하고 다소 거칠게 사용되던 별명으로 그의 국립대 제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이 별명은 천 감독이 젊은 시절에 같은 팀에서 활동하던 선수의 성에서 유래했다. 그 선수는 욕심이 많고, 비사교적이며, 둔하고 지저분하며, 협동심이 부족해 동료들에게 크게 미움을 받았다. 천 감독은 이 성을 복수형 별명으로 만들어 제자들을 우수칼로프들(Ушкaлoвцы)이라고 불렀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이 별명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출처: <https://www.sportinfo.kz/blog/show/id/371.html> (검색일: 2025.01.16.).

26) 출처: [https://www.sportinfo.kz/news/show/name/teplyy\\_dushevnyy\\_futbolnyy\\_prazdnik\\_v\\_chest\\_100\\_letija\\_chen\\_ir\\_sona\\_172184.html](https://www.sportinfo.kz/news/show/name/teplyy_dushevnyy_futbolnyy_prazdnik_v_chest_100_letija_chen_ir_sona_172184.html) (검색일: 2025.01.16.).

것을 기억한다. 그는 학생들에게 축구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경기 운영을 해야 하는 스포츠라고 지도했으며, 학생들에게 축구를 통해 삶의 교훈을 터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1979년 수화학부에 입학했던 카나트 라자코프는 60세가 넘는 현재까지도 당시 경기를 통해 느꼈던 기쁨과 감격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는 골을 넣거나 환상적인 드리블을 성공시켰을 때의 감정이 아직도 되살아나며, 지금도 축구장에 나갈 때마다 그때의 감정을 경험한다고 회상했다. 천일손은 1984년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에서의 축구 활동을 마무리하였지만, 지금까지도 그의 지도 아래 성장한 많은 학생들이 그를 존경하고 기억하고 있다(Миленькая Ю 21/08/06).

카자흐스탄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이자 지도자였던 천일손을 기리기 위해 그의 제자들, 동료들, 친구들, 가족들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의 축구 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011년 알마아타의 ‘주벤투(Зовет)’ 경기장에서 그의 탄생 90주년을 기념하는 축구 경기가 열렸으며, 2021년에는 ‘메딕(Медик)’ 경기장에서 탄생 100주년 기념 경기가 개최되었다. 그가 남긴 축구 유산은 고려인 사회를 넘어 카자흐스탄 사회에 여전히 살아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업적을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소비에트 시기 고려인 축구 지도자 천일손의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스포츠가 고려인의 정체성 형성과 사회적 입지 구축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였다. 천일손은 축구를 통해 중앙아시아, 북한, 소비에트 전역을 연결하는 중추적 인물로서 소비에트 다민족 사회 내 고려인의 사회적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스포츠를 통한 문화적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는 단순한 운동선수를 넘어 소비에트 및 북한 축구의 발전을 이끈 선구자로서 스포츠 외교 및 고려인 사회의 결속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천일손의 축구 활동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그는 북한 축구 발전에 핵심적인 기여를 한 초국가적 지도자로, 1958-60년 북한 축구 대표팀을 지도하며 1966년 FIFA 월드컵 8강 진출에 기여했다. 그러나 그의 공헌은 북한 내 공식 기록에서 배제되었으며, 이는 스포츠가 정치적 맥락에서 활용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둘째,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 콜호스 축구팀을 이끌며 공동체 결속과 정체성 강화를 도모했다. FC 폴리타젤을 소비에트 리그의 강팀으로 성장시키면서, 고려인들이 소비에트 사회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셋째, 천일손의 사례는 고려인 문화 연구에서 스포츠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스포츠가

고려인 문화 유지와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 주목한다.

천일손의 축구 활동을 균형 있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의 정체성을 고려한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그의 활동에서 두 가지 형태의 초국가적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그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소비에트 사회에서 고려인 축구 전문가로서 활동하며, 소비에트(특히 중앙아시아) 축구 발전을 위해 노력한 소비에트 시민이었다. 둘째, 그는 거주국인 소비에트와 역사적 조국인 북한에서 축구 전문가로 활동하며 두 국가의 전문 집단과 긴밀히 교류하여 양국의 축구 발전에 기여하는 등 현대적 의미에서의 초국가적 정체성을 형성했다.

즉, 그는 소비에트 내에서 고려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북한 축구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공식 기록에서는 그의 공헌이 배제되는 등 복합적인 정체성 조정을 경험하기도 했다. 또한, 실력과 관계없이 FC 폴리타젤이 고려인 콜호스 축구팀이라는 이유로 1부 리그 승격이 좌절된 사례는 그의 축구 활동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었음을 시사한다. 소비에트에서는 그의 활동이 사회주의 시민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북한에서는 국가적 자부심을 고취하는 정치적 도구로,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는 고려인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축구라는 공통의 언어를 통해 다양한 민족을 통합하는 역할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고려인 문화 연구에서 스포츠의 의미를 확장하고, 천일손의 축구 활동이 특정 민족 정체성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유연하게 조정되었음을 조명하고자 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우선 1차 자료를 확보하여 천일손의 생애사를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두 번째로 북한과 소비에트 간 스포츠 교류의 구조적 분석 그리고 소비에트 내 소수민족 스포츠 활동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소비에트 스포츠 문화 속에서 고려인들이 수행한 역할을 보다 거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김국후. 2015. 평양의 카레이스키 엘리트들: 스탈린이 급파한 고려인 500명의 슬픈 역사. 한울 아카데미.
- 김낙현. 2011. 재소(在蘇) 고려문인들의 북한문학 형성기의 활동과 역할 - 조기친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34, 215-246.
- 김브루트·김미하일. 2015. 황만금: 올림포스와 골고다를 넘어서. 한울.
- 란코프 안드레이. 1995.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정치사. 오름.
- 박원용. 2019. 소비에트 러시아의 신체문화와 스포츠. 산지니.
- 양민아. 2020a. 한·러 스포츠문화 교류의 시원(始原): 넬리 김(Нелли Ким)의 기계제조 활동사를 중심으로. 동유럽발칸연구. 44(2), 25-56.
- 양민아. 2020b. 한-소 스포츠 교류에 나타난 소비에트 한인 스포츠인들의 초국가적 정체성 연구 -넬리 김과 유리 채를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35(4), 101-130.
- 양민아. 2022. 1950-60년대 소비에트 콜호스의 스포츠와 유라시아 지역의 초국가적 축구 문화 연구. 한국 시베리아연구. 26(1), 183-212.
- 양민아. 2023. 접경문화로서 1970-80년대 우즈베키스탄 여성 스포츠 문화 연구: 여자 필드하키 팀 〈안디잔카(Андижанка)〉와 〈폴리타젤(Политотдел)〉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38(4), 177-206.
- 우동현. 2016. 1945-1950년 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활동과 성격. 문학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한국현대사.
- 장학봉. 2006.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 이야기. 경인문화사.
- 정상진. 2005. 아무르만에서 부르는 백조의 노래. 지식산업사.
- 조수룡. 2017. 전후 북한에서의 소련계 숙청과 국적문제(1954-1958). 동북아역사논총. 56, 246-287.
- 홍성보. 2015. 북한 선군체육의 기원 연구. 선인.
- Chang, Jon, Park, Jae. 2013. Soviet Koreans: Redemption through Labour and Sport. The Eurasia Studies Society Journal. 2(3), 1-19.
- Edelman, R. 1993. Serious Fun: A History of Spectator Sports in the USS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rant, S. 2013. Physical Culture and Sport in Soviet Society. Routledge.
- Lee, Chong-Sik, Oh, Ki-Wan, 1968. The Russian Faction in North Korea. Asian Survey. 4, 270-288.
- Lincoln, A. 2000. Sports and Nationalism, Handbook of Sports Studies, Ed. Jay Coakley and Eric Dunning. London Sage Publication, 344-355.
- Riordan, J.W. 1972. The Development of Football in Russia and the USSR: Part I. New Zealand Slavonic Journal. 9, 61-72.
- Riordan, J.W. 1977. Sport in Soviet Socie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livanov, I. 2017. The Soviet Koreans in the Service of the Regime of KIM IL SUNG: 1945-1955 (Based of Materials in the Personal Files of the CPSU Central Committee). Journal of Contemporary Korean Studies. 4(2), 137-156.
- Schiller, N.G. Basch, L. Blanc-Szanton, C. 1992. Transnationalism: A New Analytic Framework for Understanding Migration. Annals of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645, 1-24.
- Suh, Dae-Sook. 1987. Soviet Koreans in North Korea. Koreans in the Soviet Union. Ed. Suh Dae-Sook. University of Hawaii, 101-128.
- Yang, Mina. 2020. The Formation Process of Soviet Koreans' Transnational Identity as New Soviet Citizens from the 1920s to the 1930s: The Physical Cultural Activities in Primorye as Recorded in the Soviet Korean Newspaper Sunbong (Avant Garde). Pacific Focus. 35(2), 334-365.
- Ким Г.Н. и др. 2020. По заданию партии и зову сердца I: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Издательство ООК.
- Ким Г.Н. и др. 2024. По заданию партии и зову сердца II: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Издательство ООК.
- Ким Г.Н. 2021.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в номенклатур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аука. Общество. Оборона. 9(2), 1-15.
- Ланьков А. 2019. Август 1956, Кризис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РОССПЭН.
- Мен Д.В. 2015.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в политике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Корея 70 лет после освобождения. Отв. ред. А.З.

Жебин. ИДВ РАН, 144-152.

- Самоуков Ф.И., Токарев М.И. 1967. Физкультурное движение на селе. Физическая культура и спорт в СССР. ред. Самоуков Ф.И. · Столбов В.В. · Торпов Н.И. Физкультура и спорт, 261-270.
- Сон Ж.Г. 2015.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и КНДР (1946-1948). Корея 70 лет после освобождения. Отв. ред. А.З. Жебин. ИДВ РАН, 153-159.
- Столбов В.В., Финогенова Л.А., Мельникова Н.Ю. 2000. История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Физкультура и спорт.

### 자료집

- 로마놉스끼 에스. 소련체육협회 및 조직연맹 중앙쏘베트위원장 엔.엔. 로마노브 동지에게. 북한관계사료집 72. 소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문화교류와 관련한 조선 주재 소련대사관, 정부, 중앙기관들의 서신들(1959-1961년).  
출처: [https://db.history.go.kr/contemp/level.do?levelId=nkhc\\_072\\_0430](https://db.history.go.kr/contemp/level.do?levelId=nkhc_072_0430)  
(검색일: 2024.12.30.).
- 삼소노프 게. (소련 외무성 극동과 제1서기관). 1957.10.12. 소련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 제1서기관 강병률과의 대화록. 북한관계사료집 80. 모스크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 직원들과 소련 외무성 극동과 직원들의 면담록 1,  
출처: <https://db.history.go.kr/contemp/level.do> (검색일: 2024.12.29.).
- 오르위드 게., 허정숙. 1956.09.0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 사이의 문화 협조에 관한 1956-1957년도 대책안. 북한관계사료집 71. 소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문화 교류 협력 대책(1957-1959년),  
출처: [https://db.history.go.kr/contemp/level.do?levelId=nkhc\\_071\\_0010](https://db.history.go.kr/contemp/level.do?levelId=nkhc_071_0010)  
(검색일: 2024.12.29.).
- 쥬꼬브 게. 소련대사관 아. 엠. 뿌자노브 동지 앞. 북한관계사료집 72, 소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문화교류와 관련한 조선 주재 소련대사관, 정부, 중앙기관들의 서신들(1959-1961년).  
출처: [https://db.history.go.kr/contemp/level.do?levelId=nkhc\\_072\\_1010](https://db.history.go.kr/contemp/level.do?levelId=nkhc_072_1010)  
(검색일: 2024.12.30.).

- 콤포니케. 1957.10.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 문화 협조에 관한 회담에 대하여. 북한관계사료집 71. 소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문화 교류 협력 대책(1957-1959년).

출처: [https://db.history.go.kr/contemp/level.do?levelId=nkhc\\_071\\_0090](https://db.history.go.kr/contemp/level.do?levelId=nkhc_071_0090)

(검색일: 2024.12.29.).

- Ким В.Н., Ким М.И., Чен В.С. 2020. Коре сарам. Аван Лайн.
- Пак И.Т. 2002.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в науке, технике и культуре. КАХАК.
- Пак И.Т. 2017. Энциклопед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Таймс.

## 인터넷 자료

- FootballFacts. Чен Ир Сон (Андрей) Буирович.  
출처: <https://footballfakts.ru/person/20906-chenirsonandreybuirovich>  
(검색일: 2025.01.13.).
- Бекболатова М. · Томин Н. 2021.10.26. 100 летие Чен Ир Сона: память жива, пока помнят живые. Sportinfo.kz. 출처: [https://www.sportinfo.kz/news/show/name/100\\_letie\\_chen\\_ir\\_sona\\_pamjat\\_jiva\\_poka\\_pomnjat\\_jivye\\_172203.html](https://www.sportinfo.kz/news/show/name/100_letie_chen_ir_sona_pamjat_jiva_poka_pomnjat_jivye_172203.html) (검색일: 2025.01.15.).
- Миленькая Ю. 2021.08.06. Влюбленный в футбол. Казахская правда. 출처: <https://kazpravda.kz/n/vlyublennyy-v-futbol/> (검색일: 2025. 01.16.).
- Рудаков В. 2021.08.04. Наш тренер - АНДРЕЙ БУИРОВИЧ ЧЕН ИР СОН. Sportinfo.kz. 출처: [https://www.sportinfo.kz/news/show/name/teplyy\\_dushevnyy\\_futbolnyy\\_prazdnik\\_v\\_chest\\_100\\_letija\\_chen\\_ir\\_sona\\_172184.html](https://www.sportinfo.kz/news/show/name/teplyy_dushevnyy_futbolnyy_prazdnik_v_chest_100_letija_chen_ir_sona_172184.html) (검색일: 2025.01.16.).
- Рыжков И. 2021.08.06. 100-летию Чен Ир Сона посвящается. Sportinfo.kz. 출처: [https://www.sportinfo.kz/news/show/name/100\\_letiyu\\_chen\\_ir\\_sona\\_posvjasshaetsja\\_171482.html](https://www.sportinfo.kz/news/show/name/100_letiyu_chen_ir_sona_posvjasshaetsja_171482.html) (검색일: 2025.01.15.).
- Сарсеков С. 2018.02.21. Как закалялась сталь - Пограничник Хохман и танкист Толчинский. Sportsarena. 출처: <https://sportsarena.kz/ru/blog/18520922-pogranichnik-hohman-i-tankist-tolchinskiy> (검색일: 2025.01.20.).
- Сарсеков С. 2021.08.05. Андрей ЧЕН-ИР-СОН: Первая победа «Востока».

Sportarena. 출처: <https://sportsarena.kz/ru/blog/football/andrej-cen-ir-son-pervaa-pobeda-vostoka> (검색일: 2025.01.15.).

- Sportinfo. 2021.10.24. Теплый душевный футбольный праздник в честь 100-летия Чен Ир Сона. Sportinfo.kz.

출처: [https://www.sportinfo.kz/news/show/name/teplyy\\_dushevnyy\\_futbolnyy\\_prazdnik\\_v\\_chest\\_100\\_letija\\_chen\\_ir\\_sona\\_172184.html](https://www.sportinfo.kz/news/show/name/teplyy_dushevnyy_futbolnyy_prazdnik_v_chest_100_letija_chen_ir_sona_172184.html) (검색일: 2025.01.15.).

- Sportkaz. 2023.08.06. Ченовская закалка. Sportinfo.kz.

출처: <https://www.sportinfo.kz/blog/show/id/371.html> (검색일: 2025.01.16.).

- Тулегенов Г. 2023.08.06. Величие людей определяется делами. Андрей Чен Ир Сон- человек, искренне служивший футболу(+фото). Sportinfo.kz.

출처: [https://www.sportinfo.kz/news/show/name/velichie\\_lyudey\\_opredeljaetsja\\_delami\\_andrey\\_chen\\_ir\\_son\\_%E2%80%93\\_chelovek\\_iskrenne\\_slujivshiy\\_futbolu\\_foto\\_103135.html](https://www.sportinfo.kz/news/show/name/velichie_lyudey_opredeljaetsja_delami_andrey_chen_ir_son_%E2%80%93_chelovek_iskrenne_slujivshiy_futbolu_foto_103135.html) (검색일: 2025.01.16.).

- Шукурзода М. 2014.03.03. Дмитрий Ан: “Футбол был для него смыслом жизни”. Интервью с братом великого мастера футбола Михаила Ана. Корё Сарам. 출처: <https://koryo-saram.site/dmitrij-an-futbol-by-l-dlya-nego-smyslom-zhizni-inte-rvyu-s-bratom-velikogo-mastera-futbola-mihaila-ana/> (검색일: 2025.02.13.).

- Чен Зоя. 2021.10. Любил футбол, семью и вальс бостон.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213, 6. 출처: <https://www.arirang.ru/archive/rk/2021/RK,2021,213.pdf> (검색일: 2025.02.13.).

- История ФК Кайрат. 출처: <https://fckairat.com/club/stadium/#history> (검색일: 2025.01.20.).

- История футбольных клубов-СНГ-Узбекистан.

출처: [http://lena-dvorkina.narod.ru/FOOTBALL\\_2013/FC\\_SNG/Uzbek13.htm#\\_Toc68883087](http://lena-dvorkina.narod.ru/FOOTBALL_2013/FC_SNG/Uzbek13.htm#_Toc68883087) (검색일: 2025.01.20.).

- Система футбольных лиг СССР. 출처: [https://ru.wikipedia.org/wiki/Система\\_футбольных\\_лиг\\_СССР](https://ru.wikipedia.org/wiki/Система_футбольных_лиг_СССР) (검색일: 2025.01.20.).

## 신문·잡지

- 게오르기 코노왈류크. 1966.07.09. 소련 종합 축구단의 적수들. 레닌기치, 4.
- 교원신문. 1957.11.20. 조쏘 친선 축구 경기에서, 4.
- 김려수. 1959.11.16. 2,8팀과 소련 《까이라뜨 축구단》과의 축구 친선 경기 진행. 로동신문, 4.
- 김원봉. 1967.07.28. 후손 만대에 물려 줄 기념 선물. 레닌기치, 4.
- 동봉섭. 1960.11.07. 중앙 체육 강습소팀이 8:3으로 승리. 로동신문, 4.
- 레닌기치. 1966.07.12. 월드컵 4조, 4.
- 로동신문. 1958.06.15. 우리나라 축구 협회 국제 축구 련맹에 정식으로 가입, 3.
- 로동신문. 1958.11.01. 2.8 축구팀 조선 방문 소련 샤희쵸르 축구팀과 청진에서 친선 경기 진행, 6.
- 로동신문. 1958.11.04. 《기관차》축구팀과 소련 《샤흐쵸르》팀 간에 친선경기 진행, 5.
- 로동신문. 1958.11.11. 평양시 종합 축구팀과 소련 샤희쵸르팀간의 친선 경기, 6.
- 로동신문. 1959.06.07. 소련 방문 평양시 축구단 출발, 3.
- 로동신문. 1959.06.23.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까자흐스탄 선수들을 승리, 3.
- 로동신문. 1959.11.18. 기관차팀과 소련 《까이라뜨 축구단》과의 축구 친선 경기 진행, 4.
- 로동신문. 1959.11.20. 번개팀과 소련 까이라뜨 축구단과의 축구 친선 경기 진행, 4.
- 로동신문. 1959.11.24. 소련 《까이라뜨 축구단》 매봉산 축구팀과 축구 친선 경기 진행, 4.
- 로동신문. 1960.10.29.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소련 《크릴리야 쏘베토프》 축구단 도착, 4.
- 로동신문. 1961.09.25. 평양 축구팀이 모스크바 《쓰빠르타크》 팀을 2대 1로 승리, 1.
- 로동신문. 1961.10.30. 중앙 체육 강습소 축구단과 소련 아완가르드 축구단 간의 친선 경기 진행, 3.
- 선봉. 1926.06.10. 단오를 제(際)하여, 1.
- 선봉. 1926.06.17. 단오를 준비하며, 3.
- 선봉. 1926.06.27. 단오운동과 농촌, 3.
- 선봉. 1927.05.24. 〈단오〉운동의 총계획, 2.
- 선봉. 1927.06.12. 사흘에 빠친 신한촌의 운동대회: 6월 4일-6일 신한촌 운동장에서, 6.

- 선봉. 1928.07.08. 성황을 일운 신한촌의 하기 운동대회, 4.
- 선봉. 1929.06.05. 부패한 풍습을 쓸어버리고 체육문명을 끌어올리다, 3.
- 선봉. 1935.06.21. 해삼시 조선인 운동회의 총화- 앞으로 군중적 체육을 더 힘쓰자, 4.
- 선봉. 1936.06.18. 운동날을 원만한 준비로써 진행하자, 4.
- 선봉. 1936.06.18. 운동선수들이 출연할 규정에 대하여, 4.
- 채병도, 주송학. 1965.02.09. 로동과 문화. 레닌기치, 3.
- Горяинов П. 1937.05.27. Юные Футболисты. Красное знамя, 4.
- Соколов А. 1936.08.27. Закончилась областная колхозная спартакиада. Красное знамя, 1.
- Кан Р. 2005.03. Советский тарнспортник Чен Чи Эк. Журнал Единство (통일). 3(58), 34. 출처: <https://docs.yandex.ru/docs/view?url=ya-disk-public%3A%2F%2F614jeUW0pQ%2FwB%2FPA4SmsbLutwkan1peKF%2Fqcy%2Fmflac%3D&name=Edinstvo,2005.3.pdf> (검색일: 2025.02.12.).
- 김 Б. 2002.06.14. Чен Ир Сон: Большая жизнь в футболе. 고려일보, 4.

● 투고일: 2025.01.31. ● 심사일: 2025.02.02. ● 게재확정일: 2025.02.14.

| **Abstract** |

**The Football Career and Legacy of Koryo-Saram  
Coach Chen Il-son: Focusing on Sports Culture and  
Koryo-Saram Identity during the Soviet Era**

Yang Mina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sports culture during the Soviet era (1920s–1980s) in shaping Koryo-saram identity through the career of football coach Chen Il-son (Чен Ир Сон, Андрей Буирович, 1921–1984). Soviet sports were not only a means of physical activity but also a tool for state ideology and social integration. For Koryo-saram, participation in sports provided a strategic way to secure social standing and reinforce their identity within the multiethnic Soviet society.

Chen Il-son was a key figure in Soviet and North Korean football, recognized as a pioneer in Koryo-saram sports. After the forced relocation of Koreans to Central Asia, he built a successful career as a football player and later became a coach, acting as a bridge between Central Asia, North Korea, and the Soviet Union. Notably, from 1958 to 1960, he led the North Korean national team and contributed to their historic quarterfinal advancement in the 1966 FIFA World Cup. He also managed FC Politotdel, a Koryo-saram kolkhoz football team in Uzbekistan, strengthening community cohesion through sports.

Chen's football philosophy and tactical approach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Soviet and North Korean football. By integrating Soviet-style tactics, he laid the foundations for North Korean football and contributed to the tactical evolution of Koryo-saram and Central Asian football. This study highlights Chen Il-son's contributions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Soviet sports and Koryo-saram identity. Future research should further explore his tactical philosophy and its impact on Soviet and North Korean football, as well a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Koryo-saram sports activities.

〈Key words〉 Korean diaspora. Soviet sports. Chen Il-son. Football. FC Politotdel.  
Koryo-Saram Identity